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24일) 2021년 5월 5일 수요일

“포교 해법 ‘현장·소통’서 찾겠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4월 28일 취임 기자간담회

집행 동력 위해 본사 소통
중앙 일변 종책 수립 탈피
디지털활용 신도역량 결집
걷기순례의 국민수행 개발



서울광장 불 밝힌 희망·치유의 燈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의 장엄등이 서울광장에서 한달여 동안 불을 밝힌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28일 서울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서울광장을 장엄한 봉축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재현됐다. ‘미륵사지탑 등(燈)’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가 18m에 이르며 미륵사지탑의 70% 크기에 회화적인 면을 더했다. 탑의 양식을 그대로 살려 단아한 기풍의 한지 등(燈)으로 제작했으며, 40호 크기 한지 500여 장이 사용됐다. 봉축장엄등 ‘미륵사지탑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불을 밝힐 예정이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8대 포교원이 함께하는 포교를 위해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비롯해 교구본사·지역사찰과의 소통을 진행한다.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4월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 가는 포교 종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제8대 포교원의 기조를 밝혔다.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포교종책 △현장에서 생동하는 전법 △미래불교 기틀을 놓는 포교라는 3대 종책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함께 만드는 종책과 포교다. 현장 포교와 미래 포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참하는 대중들의 원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스님은 “포교는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들이 바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상호소통 과정”이라며 “맞춤형 포교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8대 포교원은 7대 포교원에서 진행한 신행혁신 운동을 대부분 계승한다. 다만 수행문화 보급과 신도교육 체계화, 뉴미디어 포교 등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들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범해 스님은 이에 대해 부지깽이라도 세우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그동안 포교원의 다양한 종책에도 전국적인 확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정기적인 소통과 현장 목소리를 담은 종책수립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가톨릭의 경우 시노드 회의와 같이 단위별 포교 논의, 집행이 구성되어 있다. 포교원에서 그동안 훌륭한 종책을 펴내도 지침하달 방식으로는 다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포교역량 발굴이 선행되고 사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포교국장 회의를 시작으로 제8대 포교원장 취임식 등을 조계종 최초로 언택트로 진행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소통이 기대된다.

범해 스님은 “교구본사를 비롯해 각 지역 전법도량, 수말사까지 종책이 함께 공유되고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만들겠다. 본사와 단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구본사와 수말사,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 말사신도회 등을 통해서 포교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게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서 생동하는 전법의 원동력을 위한 신도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신도 역량 결집을 위해 포교사 제도 개선을 비롯해 포교신도단체와 결합한 지역 포교네트워크 구성이 진행된다. 그동안 발급된 카드 형태의 신도증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에서 포교원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모바일 신도증 발급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전법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중요성에 따라 포교원은 걷기순례, 걷기명상을 수행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좌선과 사경, 독경, 염불 등의 활성화가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법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불교로 변화해야 한다. 명상과 건강 증진과 맞물린 걷기를 불교가 지닌 순례, 수행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범해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 이들 중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선택해야 한다.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상월선원 걷기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려내 하반기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포교를 위해 뉴미디어 포교콘텐츠 제작과 함께 동련 등 포교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발전도 포교원은 적극 진행한다.

범해 스님은 “이번 취임에서 보여준 언택트 방식이 사찰법회 등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다. 젊은 층과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은 포교방법이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특히 “포교원 기조가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7대 포교원 성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겠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포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발맞추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개인들이 청정하고, 상대가 청정하고, 사회가 청정해지는 마음가짐을 가져 하루 빨리 사회가 청정해지고, 마스크를 벗고 정담을 나누는 시기가 오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한 범해 스님은 8대 포교원의 행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발전이 불교중흥 한국불교 살리는 길”

학교법인 동국대, 4월 29일 건학위원회 발족
고문에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 만장일치 추대

학교법인 동국대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인 ‘건학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4월 29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건학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최고위원 및 상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공식 활동을 시작한 동국대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원회)는 △증명 △고문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문단 △분과위원회(교육·의료·지역·글로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5층에 마련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를 증명으로 모셨으며, 고문으로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 일성은 종립학교 구성원조차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출범하는 건학위원회는 종립학교 구성원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불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인 산하의 여러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지혜를 모아달라. 여러분의 손에 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고, 한국불교의 희망이 자란다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0여 년 전 선지식들이 종단의 귀중한 정재를 희사해 시작한 교육불사가 건학이념이자 대승보살행의 큰 길임을 강조한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흥이 동국발전에서 시작되고 동국의 발전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된다.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며 “모두의 마음을 간절하게 모아 제2건학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건학위원회 출범을 자축했다. 성우 스님은 “건학위원회의 출범은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면면불조와 역대조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자 자랑스러운 선지식을 길러내는 출발점”이라며 “4만 5천 법인 가족 모두는 큰 환희심을 가지고 건학위원회의 새 출발을 자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 시설 설치·구성, 관련 활동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건학이념 구현과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 △동국인의 원력 결집과 실천을 통한 동국발전 △미래의 교육과 의료를 선도하는 건학 불사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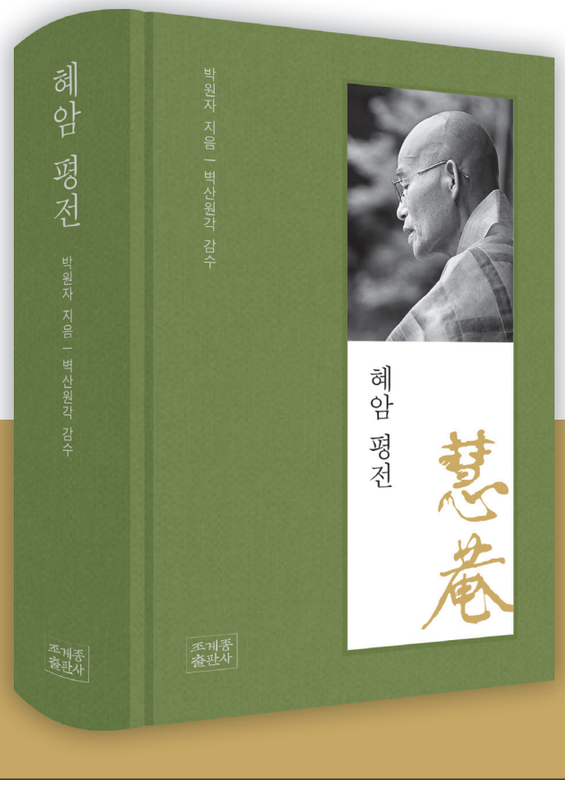
또한 전략과제로는 △불교인구 확산과 불교 소양 함양 강화를 위한 교육불사 △약사여래불의 서원 실현을 위한 의료불사 △친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문화 확산 △동국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보시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인 산하 각급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중 기관 내 건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불교종립 동국대학교는 교육보국과 인재불사를 위해 선각자 스님들이 지난 1906년 설립했다. 개교 115년이 된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건학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을 통해 제2건학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건학위 위원장 자승 스님(현판 좌측 첫 번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을 했다.



박원자 지음
벽산원각 감수
652쪽
값 30,000원

혜암 평전 慧菴
화제의 신간

공부하다 죽어라!
‘목숨을 내놓고 정진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등
혜암 스님의 서슬 퍼런 일갈은 문득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다.

가야산 정진불, 혜암 스님의 사자후—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혜암 스님의 첫 평전!

조계종 출판사

구입문의:불교전문서점 향진 www.jbbook.co.kr | 02-2031-2070~1